



한뼘 더 그득해진 가을 향기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화훼코너에 활짝 핀 국화꽃이 진 열대 시장을 찾은 시민·관광객들에게 가을의 향기를 물씬 전해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신임 제주도 정부부지사 후보에

김성언 전 효돈농협조합장 지명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7기 두 번째 정부부지사 후보로 김성언(61·사진) 전 효돈농협협동조합장을 지명했다고 7일 밝혔다.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제주 1차산업 육성 의지 차원에서 안동우 정부부지사에 이어 민선 7기 두 번째 정부부지사로 1차산업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10월

중순 김성언 정부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도의회의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정부부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성언 정부부지사 지명자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효돈초·중학교와 제주제일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주한라대학 강사를 했다. 신호청년회장, 효돈동 연정회장, 월라봉영농조합 대표이사, 효돈농협조합장(3선, 2005년 11월~2019년 3월), (사)제주감귤연합회 회장 등도 역임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도시브랜드 리뉴얼 난항 속 ‘숨고르기’

제주도, 지난 10년 활용한 브랜드 변경 재추진 학술용역심의위 벽 넘지 못하며 계획 급선취 ‘도민 공감대 확보’ 과제… 도, 내년 의견 수렴

10년간 활용하고 있는 제주 도시브랜드 ‘Only Jeju(온리 제주)’의 변경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추진 계획을 수정했다.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확보해 재추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지난 2014년 도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도시브랜드 변경 사업이 백지화됐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미흡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7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올 하반기 정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안전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내년 용역 추진을 목표로 지난 2월과 9월 ‘제주도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 학술용역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 용역은 지난 2008년 개발된 제

주도시브랜드 ‘Only Jeju Island’ 인지도 미흡으로 청정제주의 홍보와 도시이미지 가치 제고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용역을 통해 제주다운 도시브랜드를 발굴해 사회적 통합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최근 도시브랜드와 품질인증마크(JQ)가 혼동되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담당부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각각 올래행정시스템과 도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도민 42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공무원)·70.4%(도민)가 제주도시브랜드 리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사전 조사와 용

역 시행 후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10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리뉴얼 계획을 접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차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접근이 조금 미흡했고 공감대가 부족하고, 서둘렀던 부분이 있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정비해서 내후년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부서는 내년 세미나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브랜드 인식조사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서귀포시, 100곳 목표로
조성사업 확대 추진 나서

서귀포시가 국민들의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00곳 지정에 도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 처리하는 축산 농장이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총 24개소(한·육우 6, 돼지 16, 닭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올해 추가지정 신청 공모에는 16개소(한·육우 13, 돼지 2, 닭 1개소)가 신청했다. 이들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마친 상태로,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 단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 지정·관리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공공기관 임원 연봉제한 조례 추진

고은실 의원 등 10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나서 377회 임시회 의안 접수… 연봉 상한 최저임금 6~7배

제주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했다 고 7일 밝혔다.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되어 올라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

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The 58th Tamna Culture Festival

제 58 회

탐라문화제

2019. 10. 9(수) ~ 10. 13 일 |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 개막행사 : 10월 9일(수) 19:00 ~ 여는 행사, 개막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 제주문화가장퍼레이드 거리통제 : 10월 12일(토) 16:30 ~ 19:00 제주시청 정문 앞 도로 16:00 ~ 20:30 중앙로사거리 ~ 탐동광장

○ 셔틀버스 운행

- 운행일시 : 10월 9일(수) ~ 13일(일) 10:00 ~ 22:00 (10분 간격 배차)
- 운행구간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탐라문화광장
- 정차장소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 북성교 → 동문로터리 → 신한은행 → 산포광장 →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 행사기간 중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무료 개방

○ 주요행사 내용

- ※ 기원축제 : 탐라개벽신위제, 길트기, 개막행사, 폐막행사
- ※ 문화의 길 축제 : 퍼레이드 축제, 거리축제
- ※ 제주문화축제 : 민속예술축제(제주시 축제의 날, 서귀포시 축제의 날), 학생문화축제, 무형문화재 축제, 제주문화가장축제, 제주어축제
- ※ 참여문화축제 : 예술문화축제, 청소년문화축제, 국제문화교류축제, 체험·전시·시연 행사 등

주최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주관 | 제58회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NH농협제주지역본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민간사모